

로버트 치죐 박사, 이사야의 종의 노래, 4차시 : 주님의 고난받는 종 (B) (이사야 52:12-53:12)

로버트 치죐 박사님의 이사야 종의 노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4차시, 주님의 고난받는 종, B부. 이사야 52:12-53:12입니다.

이사야 53장 공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8절에서 멈췄는데, 다시 넷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절에서는 첫 번째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번역했습니다. "그는 불의한 재판을 받고 끌려갔다"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이해하는 데에는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 강압적인 법적 결정이나 그와 비슷한 종류의 무언가, 혹은 부당한 처사, 변호해 줄 사람 없이, 심지어 체포되어 재판을 받은 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때때로 조금 어렵습니다. 단어는 문맥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보일 수 있고, 때로는 모호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는 부당한 재판을 받고 끌려갔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넷 바이블(Net Bible)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지금은 토마스 넬슨이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가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가가 번역하면서 세 가지 다른 옵션이 있는 이런 상황에 직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옵션들이 여러 번역본에 반영될 것입니다.

선택 이유를 설명하는 통역 노트를 거기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불공정한 재판 끝에 끌려갔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세대에 대해 말하자면, 누가 알아겠습니까? 제가 번역했지만, 누가 신경이나 썼습니까?" "세대"라고 하면 우리는 종종 다음 세대를 떠올리지만, 저는 이 히브리어 단어 "세대"가 동시대 세대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동시대 세대 중 누가 이 단어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까? 누가 신경이나 썼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그는 산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다." 구약성경의 다른 곳에서 "산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다"라는 표현을 살펴보면, 그것은 투옥이나 그와 비슷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뜻합니다. 네, 끊어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살고 움직이고 숨 쉬고 제 할 일을 하는 산 자들의 땅이요, 거기서 끊어진다는 것은 스올에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구약성경에서 그 표현과 그 용법을 연구해 보면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본문에는 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폐사 때문에, 즉 반역 때문에... 히브리어 본문에는 "내 백성아, 내 백성의 반역 때문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산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습니다.

그건 그가 죽었다는 걸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는 살해당했어요. 그의 고통은 죽음으로 끝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벌을 받아야 할 우리 민족의 반역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들이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대신하여 벌을 받으려 했고, 그들의 반역으로 인해 산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 백성이 말하는 것이라면, 지금 그 예언자가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언자는, 제가 계속 주장해 왔지만, 예언자는 백성을 대표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와 '우리'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자 "나"를 1인칭 단수로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 백성의 반역"을 말이죠. 다른 선택지는 " 그의 백성" 으로 읽는 것입니다 . 다른 대명사로 읽으면 쿰란에 그런 대명사가 있습니다.

쿰란 사본 중 하나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민족의 반역 때문에 그랬죠. 쿰란 사본을 읽어보면, 요드와 바브를 구분하기가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맥락이 필요하니, 내 백성과 그의 백성 중 누가 여기서 일해야 할까요? 어느 쪽이 맞을까요? 어쨌든, 내 백성아, 만약 선지자가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주님을 이곳에 모실 수만 있다면 선지자의 백성은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내 백성아, 주님께서 노래의 시작과 끝에, 그리고 중간에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내 백성아, 이스라엘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주님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일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여기서는 이스라엘, 즉 언약 공동체가 중심이 되고, 그래서 그 종은 체포되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위해 개입하려 하지 않았고, 그는 그의 백성이나 선지자의 백성의 반역으로 인해 산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는 기꺼이 그들의 목숨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의 형벌을 스스로 짊어지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진정한 대속적 표현인지 의문을 제기하지만, 저는 이 표현이 분명히 그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적 효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진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성취에 이르면 그것이 사실임을 우리는 압니다. 다음 구절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들은 그를 범죄자들과 함께 묻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번역한 방식입니다. 히브리어로 레샤임은 범죄자, 악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하지만 다음 구절에서는 "죽음 속에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부자와 범죄자는 시적 비유로 그다지 적합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부자를 악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부자는 종종 압제자로 묘사되지만, 범죄자는 범죄자로 매장됩니다. 그들은 좋은 장례를 치르지 못할 것이지만, 부자들은 의로운 사람이든 아니든 좋은 장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고, 사람들은 '부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시도해 봤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 같은 다른 단어로 수정해 보려고 했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히브리어에서 글자 하나가 통째로 사라져야 했을 겁니다.

가끔은 폭도를 뜻하는 아랍어 어근과 동음이의어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라 폭도라는 거죠. 범죄자에게 어울릴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또 다른 방법은 대조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범죄자들과 함께 묻으려고 했지만, 결국 부자의 무덤에 묻혔고, 예수님도 바로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만약 아리마대 요셉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어딘가에 묻히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그의 시신에 무슨 짓을 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는 범죄자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깐요. 그런데 요셉이 나타나 그의 시신을 가져가도록 허락했고, 결국 부자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이는 그가 무죄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일 뿐입니다. 그는 사실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이 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의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보세요. 그것은 그가 당신 말대로 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문제가 있고, 번역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신약성경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고려하여 '부유한'이라는

단어에 일반적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고, 거짓된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그가 부자의 무덤에 묻혔다는 게, 범죄자를 뜻하는 다른 단어라면, 그가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도 않았고 거짓된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는 범죄자들과 함께 묻히려고 했지만 결국 부자의 무덤에 묻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히브리어 단어는 문맥에 따라 '~이지만' 일 수도 있고 '~때문에' 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모호함이 있습니다.

그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고, 거짓된 말을 하지 않았기에, 그의 행동과 말은 죄가 없었고, 결국 부자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10절에서 주님께서 그를 쳐서 병들게 하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의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는 그가 결국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마치 그를 짓밟고 병들게 하려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사실임을 압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가가시면서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 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셔야 했습니다. 다음 구절을 번역했는데, 일단 배상이 이루어지면 매우 어렵습니다. 그냥 “그의 영혼이 배상 제물을 바친다면”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번역합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는 자신이 대표하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 달래기 위해 자신의 고통을 보상으로 바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제적인 모티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우리가 이 질병 은유를 사용해 왔고, 어쩌면 그들이 제사 의식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요점을 강조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병들었지만, 다른 병든 사람, 심지어 나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병이 나았을 때 아샤마 (보상 제물)를 바치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상이 이루어지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를 짓밟고 고통받게 하기를 원하셨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를 완전히 버리셨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중요한 요점입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든, 어떤 번역을 선택하시든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는 후손을 보고 장수할 것이며, 주님의 뜻이 그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안겨주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속죄 계획의 일부였기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와의 관계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의식적인 축복을 받고 후손을 보고 장수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세요, 그는 정말 죽지 않았어요."라고 말할 겁니다. 음, 제 생각에는 그가 정말 죽은 것 같습니다. 그는 산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지만, 보세요, 그는 돌아왔고, 후손들을 보게 될 것이며, 장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신적 축복의 전형적인 요소들입니다. 결국 욥은 아주 오래 살면서 후손들을 봅니다. 그의 자녀들은 죽고 살해당했지만, 그는 새로운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여기서 정말 문자 그대로 해석 해서 "그의 후손은 누구지?"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장수"라는 말은 영생처럼 들리지 않네요. 장수. 그렇다면 메시아가, 만약 메시아라면, 언젠가는 죽는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문자 그대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가 후손을 보고 장수할 것이라는 말씀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그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의 앞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습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그를 멸하시고, 마치 그를 짓밟으 시려는 것처럼 그를 멸하시려는 것이 었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그를 통해 당신의 목적을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11절에서, 고난을 겪으신 후에야 비로소 그의 행위를 돌아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종은 고난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보고, 돌아보고, 만족할 것입니다.

여기가 제가 번역에 대해 마음을 바꾼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제가 번역했으니, 그분은 자신이 한 일을 이해하시면 만족하실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곳의 히브리어 악센트와 용법을 보면 여기서는 다른 번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은 후에 그는 자신의 일을 되돌아보고, 돌아보며, 자신이 한 일에 만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앞의 구절이 아니라 뒤따르는 구절과 연결해 보세요. 문자 그대로,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신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요 .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분의 지식으로, 아니면 그분을 아신다는 것을 통해서요? 그럼, 그분을 아신다는 것을 통해서,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의로운 자, 내 종을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실 것이고, 그들의 죄악을 그분이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지식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지식에 근거하여, 사람들이 그를 알아볼 때, 그들은 그를 알아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는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분을 인정하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분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 그분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그 일에 헌신하는 믿음을 통해, 그분은 내 종을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의 지식, 즉 종의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구약에서 지식은 종종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로는 충성과 충성을 의미하며, 따라서 종의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종에 대한 믿음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종의 신실함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거나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둘 중 하나일 수도 있지만, 저는 종의 지식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즉, 그 사명에 대한 그분의 신실하심, 곧 하나님의 심판에 자신을 복종시키심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어로 '의롭게 하다'라는 단어는 '의롭다'의 사역격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의롭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신학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를 의롭다고 선언함으로써, 즉 무죄하다고 선언함으로써 의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순번역을 했습니다. 제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 할 것입니다 . 그래서 그는 그들을 의롭다고 선언할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칭의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실제로 의롭지 않았지만 , 종이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신분을 갖게 하셨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한 가지 선택지입니다.

내 종은 많은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할 것이니, 그가 그들의 죄를 झा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죄를 झा어졌기에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가고 싶어 하는데, 용례상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많은 사람을 무죄로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의롭게 만드시는데, 이는 그가 그들의 죄를 झा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그들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법적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의롭게 만드실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어 동사에 우리가 생각하는 칭의와 성화라는 두 가지 개념이 모두 담겨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그 종을 신뢰하거나 그분의 구속 사역을 통해 그분께서 당신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는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성품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여겨지지 않기를 간구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변화를 간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칭의론에 더 가까웠지만, 이제는 성화론에 기울고 있습니다. " 번역 하면 많은 사람이 무죄가 될 것이다"라고 하기보다는, "무죄를 선고하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 것이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의롭게 만들 것이라라고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해야겠습니다. 잠시 멈춰서 이 모든 것에 대한 반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예수님이 언급된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해리 올린스키라는 유대인 학자가 아주 오래전 신시내티에서 이 구절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 그 강의의 제목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소위 고난받는 종"이었고, 결국 출판되었습니다. 그는 이 구절에는 대속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단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선지자가 겪은 고난에 대해 이야기할 뿐이며 , 여기에는 대속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는 동사의 인과형이 있는데 , 누군가를 의롭게 만들거나, 무죄를 선고하거나,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은 죄 많은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었고, 구약성경은 법적 상황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판사는 유죄인 사람을 무죄로 선언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틀렸어요. 정의를 왜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것도 정의를 왜곡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건 절대, 절대 여기서 그런 의미일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약에는 대속이라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희생 제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잘 모르겠고,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글 에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 그의 강의 자료 여백에 "복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리."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올린스키 박사님, 복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구절에는 아이러니가 가득합니다. 몇몇 학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이러니하게도 소방서가 불타버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죠. 이 구절에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악한 자들을 무죄하다고 선언하지 않는다는 규범, 즉 법적 규범이 이 구절에서 뒤집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한 사건 에서 그는 그들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는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그분께서 형벌을 받으셨기에 그들은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마치 그분의 의가 그들에게 누적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실제로 그 일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 을 의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어떤 사람은 의롭고 어떤 사람은 악하다는 현실적인 범주로 생각하지 맙시다. 그건 상대적인 문제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바울의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 깊이 빠져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을 부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려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도 의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모든 사람이 불경건하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절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모든 것을 다 날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셔야 했을까요? 모두를 멸망시키셔야 했을까요? 아닙니다! 복음의 아름다움은 바로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이 와서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짊어짐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종이 그들을 위해 행한 일로 인해 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약성경에서 우리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

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 그래서 저는 메리 올린스키의 주장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이해하는 유대인이며,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그 의미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종이 의롭다함을 얻고 상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끝납니다. 여기서의 군사적 비유가 약간 사용되었으므로, 그에게 무리와 함께 뭉을 주겠습니다.

그는 승리의 전리품을 강자들 과 나눌 것입니다 . 마치 종이 전투에 나가 목숨을 걸고 죄의 공격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죄의 죄책감이 그를 공격했지만, 결국 그는 의롭다고 인정받고 승리의 전리품을 나눌 것입니다. 그는 기꺼이 죽음을 감수했고,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었을 때 반역자들 중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 언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는 아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언급하며 반역자들을 위해 개입합니다. 이사야 53장에 대한 간략한 개요는 여기까지였지만, 마지막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항상 빌립보서 2장을 떠올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이지 사람이 되셨고, 죄인들을 위해 겸손히 자신을 희생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크게 높이실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사야 53장을 생각하지 않고 썼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분명 기념할 수 있고, 부활절 무렵에 읽기에 아주 좋은 구절입니다.

매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 광경을 보고 그분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며 모든 것을 쏟아냈으니까요. 복음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구원이 필요하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가 지옥에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돌려보내서 제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경고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여기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한 것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지하신 것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누군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면, 사람들이 믿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와 선지자들은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신약 시대의 사도로서 복음을 요약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 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구약 성경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을 읽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구약 성경에는 희생 제사 제도와 그 모델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구절들이 있지만, 이 구절이 바로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사야서와 그가 죄, 속죄 제사, 그리고 속죄에 대해 한 말을 알고 있다면, 이 구절을 읽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꽤 흥미로운 내용이네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간단한 연습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공부하면서 "아, 내가 아는 모든 유대인에게 이걸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이 구절은 그들의 죄값을 치르실 메시아에 대해 이야기하는 정말 멋진 구절입니다.

훌륭한 구절이 될 수도 있고, 꼭 유대인일 필요는 없고, 누구든 될 수 있습니다. 대학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구절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그렇지 몰라도, 원래 맥락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수 만에 상대를

체크메이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요,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하인입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종이죠. 음, 종의 노래를 다루면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포로로 끌려가 죄악에 물든 이스라엘을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40장부터 48장까지, 40장부터 48장까지, 여러 곳에서 그들이 종이 었기 때문입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그럴 때는 항상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불립니다. 이 종은 그렇게 불리지 않습니다. 사실 그의 임무는 이스라엘 야곱을 그들의 죄와 그 죄의 결과인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줄 어떤 방식으로든 고난을 겪는 것, 즉 티쿤 올람(Tikkun Olam) 같은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은 죄인이고, 종은 그들을 포로 생활과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야곱은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 에는 두 명의 종이 있습니다 .

죄악으로 가득하고, 포로로 잡혀 눈멀고, 귀먹은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이스라엘인 이 종이 있습니다. 물론 두 번째 노래는 이스라엘 49:3이라고 부르지만,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구절 뒤에, 그는 이스라엘 야곱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 이스라엘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앞서 유리 올린스키의 에세이를 언급했었는데, 그 에세이에서 그는 이 점에 대해 훌륭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유대인의 관점에 반박하며, 자신도 유대인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이스라엘을 국가, 즉 종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전달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끝났어. 좋아, 그럼, 뭐, 좋아.

어쩌면 선지자일 수도 있고, 선지자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올린스키가 주장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니다. 이른바 제2 이사야서라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런 거라는 거죠. 선지자는 어떻게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대속은 아니지만, 그는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서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고난을 당했고,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이 일로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의로운 남은 자들이 그럴지도 몰라"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온 나라를 위해 고통받고 있고, 어떻게든 그들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아뇨, 노래에 나온 말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도다." 우리는 누구죠? 이분이 선지자라는 걸 알겠습니다.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 나라를 대표하여 말하고 있지만, 마치 이사야 6장과 같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니다. 그리고 스랍들이 "카도쉬, 카도쉬, 카도쉬"라고 외치는 것을 듣습니다. 이는 매우 거룩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니,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깨닫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제 입술이 더럽거든요.

못 해요. 하루의 순서는 찬양인데, 저는 부정하고 부정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제 찬양을 원하지 않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분께서 혀를 가져오시고, 그의 입술에 솟을 바르셔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제 그는 섬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선지자 이사야는 자신의 죄악을 깊이 인식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우리 모두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도다. 예외가 없으니 선지자가 될 수 없도다."

그래서, 그 시점에, 사실 사람들이 제게 "음, 메시아여야 할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메시아가 오시면 모두가 환영하는 정복 영웅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거부당하실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겪으실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는 산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겠지만, 보라, 그는 다시 돌아와서 오래 살며 많은 후손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내리실 것이다. 익숙한 이야기네요.

앞만 보고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메시아는 이름과 얼굴이 있고, 저는 뒤돌아볼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면, 누군가 메시아로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시 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여기서 예수님을 보는 게 어때요? 이게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 움직여야죠.

이스라엘이라고, 유배된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상적인 이스라엘이지만, 유배된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선지자라고 할 수도 없고, 메시아라고 하면, 글썄요, 그 지점에서 함정에 빠진 거죠 .

그래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안내하고, 사실 저는 전에도 그렇게 했고 사람들로 부터 꽤 많은 반응을 얻었지만, 아시다시피 성령께서 일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의 노래를 마쳤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사야서의 첫 부분에서는 많은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장을 살펴봤지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사야 1장부터 39장, 특히 7장, 9장, 11장, 그리고 이사야가 예견한 다른 몇몇 부분에서 메시아적 왕적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상적인 다윗 왕이 오실 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종의 노래에서도 메시아가 등장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11장과 매우 강력한 연결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들과 11장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인을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왕족과 같은 존재죠.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이상입니다.

그는 선지자이기도 하고, 이사야 53장의 몇몇 구절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본문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는데, 제가 쓴 "이사야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상적인 왕"이라는 짧은 글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적인 왕이죠.

우리는 승리와 영광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왕은 새로운 다윗이 될 것입니다. 앞서 강의했던 11장 1절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새에게서 싹이 나올 것입니다.

새로운 다윗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 5장 2절에서도 이 새로운 다윗이라는 주제를 볼 수 있습니다 . 하나는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나왔고, 본문에서 “그는 태초에 우리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특별한 지위가 있죠. 시편 2편, 89편, 하나님의 맏아들이시죠.

이상적인 왕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정복할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4절에서 6절을 다시 살펴보면, 이상적인 메시아 왕은 전사가 되어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물리칠 것입니다.

미가 5장과 같은 다른 구절들도 이를 묘사합니다. 이상적인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열방 위에 확장할 것입니다. 시편 2편, 72편, 이사야 9장 7절, 11장 10절은 온 땅을 덮을 여호와에 대한 지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왕은 온 땅에 정의를 확립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시편 72편과 이사야 9장, 11장, 42장이 첫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49장이 두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이것이 승리와 영광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이상적인 왕입니다. 바로 그들이 찾던 메시아가 바로 이런 왕입니다. 이상적인 왕은 새로운 다윗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로써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정복하고, 열방 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며, 이 땅에 정의를 확립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제2 성전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기원전 1세기에 로마의 예루살렘 지배 현실에 대응하여 쓰인 솔로몬의 시편이라는 책이 있는데, 적어도 일부 유대인들이 이상적인 왕의 도래를 기대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시편 17장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 계통의 왕이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쿨란에는 기원전 1세기나 기원후 1세기, 아마도 그리스도 탄생 무렵으로 추정되는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에는 정복자 다윗 계통의 통치자가 도래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통치자는 제사장적 메시아적 인물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들은 왕족과 제사장적 메시아, 두 명의 메시아를 맞이했습니다.

아마 스가라서에서 그런 내용을 얻었을 것 같아요. 다윗의 후손과 제사장이 나오는데, 읽어보면 정말 까다롭죠. 두 인물이 분리될 것처럼 들리지만, 어쩌면 하나로 합쳐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정복하는 통치자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겠죠.

제 유대인 친구가 한 번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성경을 공부하며 이사야 11장을 보고 있었는데, "밥,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이유야."라고 말했죠.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고, 이 땅에 정의를 가져오지 않으셨거든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누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음, 이게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이상적인 왕이나 메시아의 유일한 초상화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です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구절들이 메시아의 승리와 영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적들을 물리치실 때 재림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에 대해 읽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며, 이는 구약 성경의 이 구절들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인물의 두 번째 부분은 반대와 고통에 대해 다룹니다. 이상적인 왕은 반대에 직면해도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2편, 어찌하여 열국 이 분노하며 민족 들이 헛된 것을 꾀하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고, 그분께서 택하신 왕에게 반항하려 한다.

종의 노래에서, 우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노래에서 반대의 조짐을 조금씩 보았습니다. 50장에서 종의 고난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가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종으로서 고난을 받는 왕 같은 메시아이고, 53장에서 절정에 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계속 고집할 것입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이상적인 왕은 주님의 손에서 고난을 감내하며, 그의 백성과 그 백성이 누구이든 간에 많은 사람들의 죄를 속죄할 것입니다 .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으시기를 바라시는 주님은 그 종을 열방의 왕으로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53장의 시작과 끝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이사야 11장에서 읽은 내용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은 단순한 고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한 종이지만, 이제 고난을 겪음으로 인해 높여질 것입니다.

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예수님도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복하는 왕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의 압제적인 통치가 문제였지만, 더 깊은 문제, 즉 해결해야 할 영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사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로 죄로 돌아갑니다. 바로 죄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구원이 반드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주님께서 그 종의 고난을 통해 그 매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후에 영광스러운 미래의 왕국을 가져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어떤 사회를 보든 우리가 이해하는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복음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며, 하나님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싶어하십니다. 따라서 반대 와 고난을 겪기 전에는 승리 와 영광을 얻을 수 없습니다 .

그리고 예수님은 두 가지 초상을 모두 성취하셨기 때문에 메시아이십니다.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때 이 점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았으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이사야 61장입니다.

이 부분에 종의 노래가 네 개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 사실 다섯 번째 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을 40편에서 55편, 그리고 56편에서 66편으로 나누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소위 두 번째 이사야와 세 번째 이사야라고 하죠. 이렇게 나누면 부분 간의 통일성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6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를 택하시고, 내게 사명을 주셨음으로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추어 보겠습니다.

무슨 소리지?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네. 첫 번째 종의 노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네.

주님이 나를 택하셨네. 첫 번째 종의 노래. 주님께서 나를 임명하셨네.

그분께서 제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제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정말입니다. 여기서 선택은 마샤흐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시아흐, 즉 메시아라는 단어를 얻게 된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구약에서 성령으로 기름부음이 일어날 때, 그것은 왕의 행위입니다. 왕의 행위죠. 그러니까, 여기 누군가 마치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왕인 것처럼 말하는군요.

뭘 하려고? 가난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상심한 사람들을 돕고. 첫 번째 종의 노래 같네.

억압받는 자들, 아시잖아요. 희미한 심지 말입니다. 포로들을 풀어주고 포로들을 풀어주라고 선포하시려고요. 잠깐만요, 방금 첫 번째와 두 번째 노래에서 그 내용을 읽었어요.

그는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여 그들을 옥에서 풀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해를 알리시려고. 멈춰라.

그는 마치 자신이 전사라도 될 것처럼 복수와 그 모든 것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두루마리를 들고 이 구절을 읽으셨는데, 제가 읽은 부분까지 읽으시며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다른 본문들과 비교해 보면, 제가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 온갖 유사점이 있습니다.

신성한 영의 권능을 받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역도 했고, 이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목록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많은 학자들이 "이건 하인과 비슷하군요"라고 말할 겁니다.

주님의 종이 하는 말 같네요. 같은 요점인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없어요. 그는 여기 선지자이니깐요.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네, 그는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이분법적 판단은 하지 마세요.

당신의 선택은 왕과 선지자 중 하나가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는 둘 다입니다. 그는 성령 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정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왕이지만, 동시에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있는데, 이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희년을 암시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정의를 증진하기 위해 행했던 일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이 바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선포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이자 동시에 왕이기도 하죠 . 우리는 노래에서 그걸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모티프를 모두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가 여기서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이 구절이 바로 뱀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뱀. 종이요.

지쳐가네요. 말하는 건 종이고, 주님의 종이니깐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다섯 번째 종의 노래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종의 노래는 시작점에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택하신 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정의를 베풀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실 것입니다. 49절에서 이 모든 것이 반복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노래에서 예수님은 종에 대한 극심한 고통과 압제를 언급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심으로써, 본질적으로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상적인 다윗 왕입니다. 나는 메시아이고, 선지자입니다. 장차 오실 궁극적인 선지자입니다. 나는 이 두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주님의 종입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말씀 에 감사드립니다 .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우리를 위해 제시된 그 계획을 봅니다. 그 계획은 예시되었고, 역사 속에서 펼쳐졌을 때 사람들이 볼 수 있었을 만큼 구체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보고 주 예수님께 나아와 그분이 메시아이시며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가 무죄하다고

선언받을 수 있게 하셨으며, 당신의 영을 통해 당신의 영의 역사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버트 치죤 박사님과 이사야의 종의 노래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4차시, 주님의 고난받는 종, B부. 이사야 52:12-53:12입니다.